

## 원지사 마지막 인사... 대규모 승진 예고

내달 2일 하반기 인사... '7월 사퇴설' 무개원 지사 대선출마 고려 시기 조정 관측 유력  
도청 내 '빅3' 공석에 따른 도청공백 우려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7월 2일을 기해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이번 인사에서 1962년 상반기생인 실국장급 8명이 물러나면서 대규모 승진 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7월 2일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 단행을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희망보직 접수를 시작으로 ▷(10일) 5급 승진심사 인원 공개 ▷(17일) 5급 승진 의결자 발표 ▷(24일) 승진심사 인원(5급 제외) 공개 ▷(7월 1일) 인사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용장 수여는 2일 이뤄진다.

인사운영 방향은 민선7기 하반기 도청운영 성과 창출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인력 배치가 전망된다. 제주형 뉴딜의 선제적 추진과 코로나19 방역 대응,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또한 격무·기피부서 장기 근무자인 경우 희망보직 우선 고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단기 보직 이동은 최소화하고 도와 행정시간 협의를 통한 인사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인사에서 실국장급 8명 이상이 물러날 전망이다. 62년 상반기생인 문경진 도의회 사무처장과 송중식 자치행정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이학송 교통항공국장,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 현공민 인재개발원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박용택 국회 파견 부이사관 등이 공로연수 대상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승진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매년 7월말이나 8월중에 단행하던 하반기 정기인사 시기를 앞당긴 것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제주도자치경철위원회 설치 등의 조직개편을 반영한 수시 인사가 지난 5월 14일에 진행됨에 따라 별도의 조직개편 반

영사상이 없어 예년보다 인사 시기가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인사 시기를 앞당겼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원 지사가 현재 각종 정책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으나 이재명 경기지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의 이슈에 가려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7월중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7월 12일부터)하고 일찌감치 지사직을 사퇴해 국민의힘 경선에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높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관련 입후보 제한직 등의 사직기한은 오는 12월 9일까지, 하지만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바로 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 만약 이번 정기인사를 마지막으로 원 지사가 사퇴할 경우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정무라인 8명이 동반사퇴를 하게 된다.

원 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하더라도 제주도지사 보궐선거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 지사 사퇴시 신임 정무부지사는 지사권한 대행인 행정부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정무부지사 자리를 공석으로 놓아둘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임명할 지도 관심사이다.

여기에다 최승현 행정부지사가 6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제주도청 '빅 3'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해 도청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행정부지사는 이미 도와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고위 관계자는 "원 지사와 행정부지사가 교감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지사가 반대하지 않고 수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대나무숲이 고마운 계절 9일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원 대나무숲을 찾은 관광객들이 대나무숲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상국기자

### 스마트특성화사업 3년 연속 2개 과제 선정

#### 190억 투입 장비 고도화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에 청정 바이오화 사업과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민간시험 평가·인증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2022년 최종 선정된 스마트특성화

사업은 2개 사업·190억원(국비 117억, 지방비 73억) 규모의 장비고도화 사업으로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최신 설비로 교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내 산·학·관·연이 스마트특성화 사업을 통해 교체된 최신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장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대리기자

## “제주도청 공백 우려 현실돼선 안돼” 좌남수 의장, 도의회 제395회 임시회 폐회사서 지적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원희룡 제주지사의 중도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행정부지사가 명예 퇴직을 신청하면서 도청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가 현실이 되면 안된다”면서 공직사회를 향해 현안 해결에 매진할 것을 촉구했다.

좌 의장은 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 3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원 지사의 대권 도전으로 인한 중도사퇴 우려는 물론, 지사 공석 시 업무를 대행해야 할 행정부지사마저 명예 퇴직을 신청했다”며 “실제 하반기 공무원 정기인사도 앞당겨 예정돼 있어 도청의 행정 공백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좌 의장은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코로나 확산세로 공직사회는 비상인데, 공직 기강을 바로

잡고 도청 현안 해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 의장은 지난 4일 추가경정예산심사 도중 일부 도의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지 모임 출범식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친 것”이라며 잘못을 시인했다.

그는 “도민들은 예상보다 빨라지는 선거 분위기로 도청에 이은 의정 공백도 우려하고 있다”며 “도청이 잘 못하면 의회가 바로잡고, 부족함을 채워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힘을 모으겠다”고 반성했다.

또 2018년을 기점으로 제주의 투자 유치 실적이 급격히 감소한 것에 대해선 “규제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 양질의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제주특별도 헌법적 지위 확보 재도전? 대선 주자들 개헌 목소리 따라 추진론 재부상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내년 대선을 전후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선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재도전 기회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론을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만약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4년 중임제 개정에 성공한다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며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등 의지를 책임지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가 내치를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또다른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헌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헌 추진 시점에 대해 정 전 총리는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화두로 들고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위상 확보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개헌을 통해 특별자치도 혹은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헌법에 규정하게 되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발목잡았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추진했던 개헌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근거규정이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개헌이 추진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관련 내용이 명시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885@ihalla.com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1167  
9일 18시 기준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에폭시/우레탄 도막제거

표창장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이사장 직책회  
귀하는 자조자립현통의 활동조항 실천을 포병원으로 실천하여 수상공인 활동조항 실천화 및 경직력 제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주변미생협 박영

제주대 중앙도서관 도끼다시바닥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 723-3090 010-5678-2586

신화역사공원 YG

대형 상가매장

월정리 카페

냉동창고 콘크리트 폴리싱

영성미디어센터

종달리 카페

동아타운 물류센터

세화카페

유도농협하나로

스트라이크볼경기장

함덕 유드림 식자재마트